



조계사 합창단이 '5·18광주민중항쟁 30주년 기념법회 및 추모 위령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이날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광주민중항쟁 운동 기념식에서 부르지 못하게 했다.

5·18 광주민중항쟁 30주년 기념 법회

# 그날의 상처 보듬어 주소서

“역사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80년 광주의 희생과 상처를 보듬어 주소서. 나아하고 비굴했던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자주와 평화 그리고 정의의 역사로 바꿔놓은 숭고한 영령에게 극락왕생의 가피를 내려주소서.”



5·18 광주민중항쟁의 실상을 알리는 자료사진. 계엄군이 시민의 옷을 벗긴 채 폭력을 가했다.

굵은 빗방울이 대지를 적신 5월 18일 서울 조계사. 막 연등축제를 마친 경내에는 축제열기가 한풀 꺾여 있었다. 부처님오신날을 3일 앞두고 있지만 경내는 고요했다. 때 아닌 총성이 들려왔다. 법당을 뚫고 들어다보던 참새도 파닥 날갯짓을 한다. 영상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의 실상을 알리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신도들의 안타까운 탄성이 법당을 가득 채웠다.

흑백 영상에 군인에 의해 피투성이가 된 시민이 바지 끝을 잡힌 채 끌려가다 내동댕이쳐지고 있었다. 참혹했다.

## 앞으로의 민주화는 살아갈 사람들의 몫

## 슬픔 되새기는 날 아닌 민주주의 기념일 되길

스님과 신도들의 기도가 이어졌다. '자주와 평화, 역사로 바꿔놓은 숭고한 영령'들을 위한 기도였다. 그리고 숭고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할 것을 발원했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대한불교청년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청정승가회유원대중결사는 '5·18 광주민중항쟁 30주년 기념 법회 및 추모 위령제'를 봉행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퇴휴 스님은 “슬픈 부처님오신날이었습니다”며 추모법회를 시작했다.

“민주화가 될 것이라고 희망했습시다. 5·18 영령의 영원과 민주화 정신이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슬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민주화는 그냥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민주화 투쟁으로 희생된 영령들이 이룬 것입니다. 사건의 실상이 낱알이 밝혀져, 다가올 5·18은 슬픔을 되새기는 날이 아닌 민주주의를 이룩한 기념의 날이 돼야겠습니다.”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앞으로의 민주화는 살아 있는 살아갈 사람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원망은 원망으로 씻어지지 않는다는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 영가를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마음의 짐을 털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2004년 5·18기념식부터 공식 추모곡으로 제정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했다. 토진 스님은 “부르지 못하게 하니 더 부르고 싶어



1980년 5월 29일 광주에서 치러진 합동차에서 아버지를 잃은 꼬마 상주 가 영정에 기대었다.

졌다”며 조계사 합창단에 노래를 청하기도 했다.

민주항쟁이 벌어진 광주에서는 해마다 5월이면 가슴에서 아려오는 아픔과 가족과 친구를 잃고 살아온 남은 자의 슬픔이 더해진다.

광주지역신행단체는 5·18 당시 격전지였던 광주 원각사에서故 지광 김동수 열사 및 희생자 추모 법회를 개최했다.

김동수 열사는 조선대 불교학생회 소속으로 대불련 전남지부장으로 활동했다. 5·18 당시 대불련 전남지부장으로 광주지역 봉축위원회 부집행위원장이었다. 시민군이 전남도청을 사수하고 있던

그해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총칼에 시민군이 무자비하게 짓밟힐 때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에 남아 시민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다 희생됐다.

법회에는 김동수 열사의 부친 김영성, 모친 김병순 여사가 참석해 희생자에 대한 슬픔을 더했다.

한편, 광주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추모법회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참했다. 또 공식 추모곡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하자 광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정부의 공식 추모곡과 별도로 5·18 구(舊)묘역에서 기념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16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구 망월묘역)에서 '2010 민족민주열사 해린 큰 곳'을 개최했다.

이상연 기자·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왼쪽부터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총무 무진 스님, 연담 스님, 김동수 열사 아버지 김영성, 김동수 열사 추모사업회 이준규 회장.



## “5·18은 제 마음의 집입니다”

### 광주항쟁 겪어낸 연담 스님

“5·18 당시 같이 활동한 가장 절친했던 도반인 각 스님이 광영, 구례 화엄사 주식이 계엄군이 쏜 총탄에 허상을 맞아 불구가 돼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제 마음속의 집입니다.”

연담 스님(前 보림사 주지·사진)의 목소리에 한이 서려있었다. 벌써 30년이 지났지만, 스님은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한 한동안 정당한 삶을 살 수 없었다고 한다.

연담 스님은 5·18 당시 광주 무등산 중심사 총무 소임을 보고 있었다. 스님은 사찰에서 부처님오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19일 한 신도의 아들에게서 광주시내에 대해 생생히 들었다. 스님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연담 스님은 다음날 시내로 나왔다. 광주시내에는 시민들과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었다. 스님은 군인들이 시민을 폭행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도우러 온 도반인 진각 스님과 같이 시위대에 합류했다. 그날 저녁 다시 사찰에 가서 부처님오신날 준비를 했다.

1980년 5월 21일은 부처님오신날이었다. 사찰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모든 교통수단이 움직이지 않았고, 통행이 통제됐기 때문이다. 스님은 초파일 음식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손수레에 싣고 전남도청으로 나갔다. 시민들은 계엄군의 만행에 항의하기 위해 전남도청에 모였다. 계엄군은 시민을 조준 사격했다. 이날 최소 54명이 숨지거나 5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목숨을 위협받은 시민들은 총으로 무장하기 시작했다.

22일 다음날 기독교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이 광영(진각 스님)이 총에 맞고 실려왔다”는 참담한 소식이었다. 병원에서 만난 진각 스님은 “처주에 총을 맞아 불구가 되었으니, 부모에게 짐을 지우지 말고, 증신사에 데려다 달라. 증신사 토굴에 연탄불을 피우고, 천수경 염불을 해달라. 빨리 죽어서 다음 생애는 멋진 중생할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님은 진각 스님을 부모님에게 보내야 했다. 그리고 스님은 다시 시내에서 시민군 활동을 했다.

연담 스님은 광주민중항쟁 때 도청 앞 분수대에서 연설한 것이 시민 선봉자가 돼 도청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1980년 10·27법안으로 운악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산 봉선사에서 군인들에게 끌려가 봉선사 조실 월은 스님(前 동국대학교 역경원 원장과 주지 인목 스님의 도움으로 풀려났다.

그 후 스님은 서울로 상경해 1984년 중앙포교 연구회를 조직했고, 서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1985년 민중불교운동연합이 창립대 이념교육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1986년 정토구현전국승가회 사무국장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관련 국민운동본부 불교계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실물크기(소) 3.5 x 5cm (중) 5 x 7cm

복상불소영가천도장량식식사용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계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금강경 천수경 변이상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 x 10mm x 12mm 55,000원 10mm x 10mm x 12mm 65,000원 12mm x 10mm x 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은 주는 거리가 지름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 x 16 x 16cm 155,000원 원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은 마음'을 이루어 주며 일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쁠시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복대는 온열치료기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옥각돌이 80°C 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격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열안,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해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속담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담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흥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속담(최고60°C)보다 높은 고열(80°C 이상)의 **원격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은열지않,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들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